

## ■ 2023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연극분야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6일 (화요일) 10:00~16: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강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선옥, 오진호, 이영철, 이원희

2023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연극분야) 사업은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 및 고용 안정화를 이루고 민간 분야의 창작 여건을 개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여러 연극단체들에게 전문인력들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더 많은 연극인이 다소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며, 이를 바탕으로 연극인들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심의 기준은 각 단체가 제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공연기획 경영과 무대 예술 분야에 한정하여, 직무 분야와 자격 여건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서에 기재된 지원단체의 규모, 2022년 활동 실적, 2023년 활동 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장애인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한 실적이 있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인정했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규모와 자격 요건, 단체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 실적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지속성과 가능성을 가졌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사업에 지원한 몇몇 단체가 다른 사업자로서 동일 공간에서 활동하거나, 친족관계로서 실제로는 공연이나 인원 및 공간을 공유하는 사실상 동일 단체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추후 정부 시스템에 부정수급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았던 단체 중에서 지원금을 정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인건비를 규정에 따라 월별 집행하지 않은 단체도 감점 처리하였다.

이런 사항에 입각하여 모든 심의위원이 각 단체를 평가한 점수를 입력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성적을 산출하여, 최고점을 받은 단체부터 인력지원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 많은 인력을 신청한 단체도 있었고, 적은 인력을 신청한 단체도 있는데,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은 공고내용에 따라 1인 배정을 원칙으로 하여 동일하게 배정하였으며, 2개년 지원을 신청한 단체는 순위에 따라 정해진 인원을 소진한 후에는 1개년 지원을 적용하였다.

심의회원들은 모든 예술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자유롭고 수준 높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든 예술단체와 연극 예술가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심의평을 마친다.

심의회원 일동

## ■ 2023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14: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강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백의선, 서성훈, 송영선, 신상미, 채명순

2023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은 민간 공연예술단체 또는 공연장 소속의 전문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공연기획경영 또는 무대 예술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인력으로 기존과 신규 모두 지원 가능하며 국공립 예술단체 및 재단은 제외함으로써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화와 민간 분야의 창작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총 41개의 민간 단체가 지원했으며 기제출한 ‘지원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 취득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했습니다. 정성평가는 전문인력지원사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단체의 활동 실적 및 활동 계획의 충실성을 통해 전문인력을 활용할 자격 요건이 충분한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창제작의 활성화 및 예술적 기대효과가 높은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전문인력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공연기획경영과 무대예술분야별 직무 배치의 적절성도 주의 깊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경우 일정의 인센티브를 인정했습니다. 정량평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수와 평균보수 수준, 단체 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비율을 점수로 산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 및 미제출로 10개의 단체가 결격처리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1개 단체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인원배정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인원배정에 있어 정해진 예산 규모 안에서 가능한 많은 단체에 혜택을 주고자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1인을 배정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2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개년과 2개년 지원을 함께 진행하여 순위 내 2개년 지원 단체 9팀이 23년, 24년 공연인력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개년 선정 단체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차년도 배정 여부가 재평가됩니다.

선정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차별화된 활동 실적을 기반으로 기획경영 및 창제작에 있어서의 예술적 영향력이 기대되었으며 특히 활동과 인력 활용에 대한 청사진이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자 애쓰는 민간 무용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기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을 통해 무용 분야 민간 예술단체의 양적 질적 확대를 바라는 바입니다.

심의위원 일동

## ■ 2023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10:00~17: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강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유진, 김종민, 박재성, 안미현, 최영미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연예술분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이 분야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은 민간 분야의 창작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음악계에서의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위해 다양한 구성의 민간 공연예술단체 또는 공연장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공연예술 전문인력지원에 대한 이번 심사가 공모사업에 대한 음악계의 관심도와 중요도를 실감할 수 있는 심의였음을 우선 밝힌다. 아울러 모든 신청단체들의 참여 의도 및 행사 진행 계획이 음악계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의 심의 기준은 지원단체의 활동실적 및 계획과 전문인력 운영계획, 그리고 인적 투자 현황 및 계획에 기본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활동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는 지원단체의 주요활동 실적과 성과뿐만 아니라, 지원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의 충실성과 사업기 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 평가되었다. “전문인력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문인력의 직무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등이 해당된다.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의 평가에 있어서는 지원 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평가가 정량적으로 적용되었다. 지원단체들의 그동안 축적된 높은 수준의 역량과 세부 평가사항의 세분화로 인하여, 심의회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토론과 논의가 있었음을 아울러 밝힌다.

우리나라의 공연예술계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므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연작품도 해마다 발전되는 양상이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시장현황이며, 공연예술계 단체들이 추구해야 할 이슈일 것이다. 본 심의회의에서는 이러한 현황에 입각한 판단에 합의했으며, 이러한 점이 평가의 중점 고려사항이 되었다. 심의회의에서 활발한 토론도 이러한 점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본 사업은 단체당 지원인력 배정을 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악계의 요구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채용단체 우선 선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결격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심의회는 검토와 평가작업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문인력 운영계획이 단체의 핵심역량으로 어떻게 이바지하는지가 다소 모호했다는 점이다. 전문인력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력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그 성과가 확산되리라는 것이 본 심의회는 의견이며, 신청단체들이 앞으로 지원신청 시 이를 중요하게 감안했으면 한다. 앞으로의 지원신청을 위해, 심의회는 검토작업과 평가작업에서 제시되고 토의된 주요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의 신청단체에 대한 당부사항에도 해당된다.

- (1) 단체의 사업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연예술계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 (2) 단체의 사업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
- (3) 단체의 전문인력 운영계획이 인력의 업무역량을 높여주고, 단체를 발전시키는 데에 공헌하는가?
- (4) 전문인력의 전문분야가 우리나라 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인가?

심의회 위원 일동

## ■ 2023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전통예술 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10:00~16: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강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우, 노은아, 이관웅, 차예지, 최영미

본 심의는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기획경영 및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공연예술인의 근로 여건 개선과 민간 예술단체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연예술 전문인력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 1개년 지원 사업에 2개년 지원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2개년 대상 지원단체도 동시에 심사하였다.

본 심의는 정성평가 지표 기준에 따라 지원신청한 단체의 주요 실적과 성과 그리고 전문인력 운영계획을 평가하였다. 전수검토제 운영에 따라 심의에 참석하는 모든 심의위원은 사전에 지원신청서를 모두 검토한 후 회의에 참석하였다. 심의 당일엔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방향, 단체의 인력지원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하였으며 토론 후 개별 채점을 진행하였다.

올해부터 전문인력 배정인원이 한 명으로 제한되어 보다 많은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장애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운영계획도 검토하여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기존에 전문인력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 활동실적과 활동계획을 잘 연계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 일부 단체는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기술하여 단체의 2023년도 계획안에서 전문인력이 어떻게 운영될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기존에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단체의 경우 전년도의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전문인력 활용 계획이 평가기준에 부합되게 연계성이 있는 경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인력지원 사업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많은 심의위원들이 이에 공감하였다. 심의회에서 신규단체와 비수도권 단체에 조금 더 기회를 주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고 많은 심의위원이 이에 동의하여 채점하였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통예술 단체가 전문인력지원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계획한대로 2023년 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심의위원 일동